



중소기업청, 中企 기술개발에 3700억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총 3699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지난해 3259억원 보다 13.4% 증가한 수준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모두 15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1596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보다 174억원이 증가해 200여 업체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증가율면에서는 중소기업간 협력에 의한 융합화와 복합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사업이 지난해 25억원에서 148%나 증가돼 62억원이 지원된다.

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의 경우도 전년대비 각각 60억원(60%)과 31억원(52.5%)이 증가된 160억원과 90억원을 지원한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산학협력실 설치지원 사업 70억원,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 사업과 B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 사업으로 각각 20억원, 향토산업 신기술융합개발사업 25억원, 총 4개 사업을 통하여 135억이 새롭게 지원된다.

이밖에도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800억원에서 50억원이 늘어난 850억원을 융자사업으로 연중 지원하고, 산학연컨소시엄과 대학내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461억원이 지원된다.

정통부, 디지털콘텐츠 발전에 1309억 투자

정보통신부는 2006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 및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성장지원,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 첨단게임SW 및 DB산업육성,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 인력양성 분야에 1309억원을 투자한다.

정통부는 지난 2월 14일 국내·외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시장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2005 국내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컨퍼런스"를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하고,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발표와 함께 세계의 게임, 디지털 영상, 모바일 콘텐츠, e-러닝 시장 동향 등이 발표됐다.

중소기업청, 2006년 생산정보화사업에 80억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의 POP·CIM·MES 등 생산 정보시스템 구축지원을 위해 80억원의 생산정보화 사업비를 지원한다.

'생산정보화사업'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생산 공정을 제어·감시해 경영자 및 작업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생산현장의 정보화사업. 이를 위해 컴퓨터와 정보통신 NW를 활용해 통합생산이 가능한 POP·CIM·MES 등 생산정보시스템 구축비용 50%(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산정보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3월 3일까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On-Line(i-sme,kimi.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